

존 갈리아노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크리스찬 디오르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

이귀영* · 조규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교수

**A Stud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s
in John Galliano Collection**

- focusing on Christian Dior's Collection -

Lee, Kwuy-Young* · Cho, Kyu-Hwa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shapes of John Galliano's Dior Collection as the chief executive designer of Christian Dior Maison during 1996~2007 after he showed himself in Paris in 1990.

This study was based on the analyses of John Galliano's design trends of his collections, the pictures of his works in Christian Dior's collection, real works, documents and fashion magazines, newspapers, mass media, internet sites and other visual materials.

The study identified characteristics of shapes in Dior Collection until 07/08 F/W as the chief executive designer of Christian Dior Maison, and the design trends before his post-Paris period.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First, Galliano was open to any types of cultures as a liberalist, and also respectful to the tradition or principles. He led the fashion business with new trends by exploring both sides.

Second, he succeeded in commercializing his avant-garde feature. Especially, His creativity changed the image of Christian Dior to younger and more casual one.

Third, born in England and worked in French, he always took both English (Victorian Style) and French(Napoleon era, Femme Fatal style) sides, and showed excellent formulation that the times needed by combining topical Chinese, Japanese, Egyptian styles.

Key Words : John Galliano(존 갈리아노), Christian Dior's collection(크리스찬 디오르 컬렉션), Characteristics of Designs(디자인 특성)

I. 서론

패션은 개인의 삶의 가치를 나타내며, 나아가 문화이며 산업이 되었다¹⁾. 예를 들면, 크리스찬 디오르, 구찌, 샤넬 등은 그 시대의 문화를 대변했으며, 산업을 이끌었고, 현재도 패션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은 크다. 특히 존 갈리아노가 수석 디자이너가 된 이래, 디오르 메종은 그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패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또한 그의 디자인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컬렉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의 과장되고 극적인 연출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파리의 쿠튀르 브랜드에 젊은이들까지 열광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컬렉션을 취재하는 패션 저널리스트들도 '디오르의 컬렉션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컬렉션'이라고 할 정도로 다이나믹함과 동시에 즐거움과 놀라움을 주는 컬렉션으로 정평이 나게 만들었다²⁾.

갈리아노에 대한 선행연구는 이미 콜린 맥도웰(Colin McDowell)의 「Galliano」³⁾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1998년 이후의 것이 언급되지 않았고 국내에서도 이것을 바탕으로 한 연구 논제가 있었지만 디오르 메종만 취급하지 않았으며 그의 성공적인 전략이나 디자인 특성까지는 취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리스찬 디오르 컬렉션을 발표한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의 디자인 특성과 성공적인 전략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디자인 내지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공적인 사례 연구는 디자인 연구뿐만 아니라 한국 패션의 고부가가치화, 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2007년은 디오르 창립 60주년이며 갈리아노가 디오르 수석 디자이너 10주년을 맞이한 해이므로 그의 디자인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

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 자료와 사진, 패션 잡지, TV, DVD, Video, 실물자료, 인터넷 사이트 등의 시각자료를 참고로 디오르 메종의 오트 쿠튀르,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나타난 그의 디자인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내용도 이를 위한 시대적 배경, 패션사적 배경, 파리 진출 이전의 갈리아노의 디자인 경향과 파리 진출 후 그의 디자인 경향, 디오르 메종의 수석 디자이너로 있으면서 1996년에서 07/08 F/W까지 발표한 디오르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을 다루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연도와 시즌의 표기는, 예를 들면, 2002년 봄/여름 컬렉션은 02 S/S, 2002년-2003년 가을/겨울 컬렉션은 02/03 F/W로 하였다.

II. 시대적 배경

1. 일반적 배경

1) 웰빙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 두드러진 시대적 배경 중 하나는 웰빙(well-being)을 위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이다. 웰빙은 물질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활환경을 되돌아보며 자연 친화적인 생활 방식과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잡힌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회적 변화를 기반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박하고 가치 지향적이며, 자유로움과 여유를 추구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명상과 향기요법으로 마음의 피로를 풀고, 무공해 유기농채소들로 식단을 꾸미는 등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대중화를 태동시키게 되었다.

한편 기존 소비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던 기업들은 '웰빙 마케팅 전략'을 경쟁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던 소비자들은 폭발적인 호응으로 웰빙 문화트렌드를 확산시켰다. 또한 웰빙 문화트렌드는 웰빙 패션, 웰빙 푸드, 웰빙 체조, 웰빙 주택, 웰빙 수면법, 웰빙 잡지 등 전체 의식주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라이프스타일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쳤다.

2) 포스트모더니즘의 여성시대와 정보화문화혁명

1960년대 이후 건축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든 다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외되고, 하등한 것으로 인지되던 여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시 정립되기 시작했다. 여성은 남성의 만족을 위한 꾸미기 아닌, 여성 자신의 성을 가꾸고 개발하자는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어 여성문화는 여성의 내적 충족과 완성감을 이루는 개념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를 형성하게 되어 전통적 산업사회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새로운 사회형태를 만들었다. 컴퓨터의 출현은 시간, 공간 개념을 바꾸어, 글로벌한 세계만이 아니라 가상공간까지 볼 수 있게 만들었다.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속도감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바뀌었고 대화의 관념도 바뀌었다⁴⁾.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의 정보를 동시에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탈냉전과 중국 경제의 발전, 세계 경제의 블록화, 제3세계에 대한 관심과 전통성의 회복, 다양한 문화의 공존 등으로 인해 글로벌화가 나타났다.

2. 패션사적 배경

1) 패션의 글로벌화, 다양화, 복합화

21세기를 전후하여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정보화 사회를 이루며 패션은 글로벌화, 다양화, 복합화의 특성을 띄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의 확산, 국제적 개

방, 교류를 통해 패션의 의식과 취향이 국경을 초월하게 되면서 글로벌 패션이 나타났다. 그리고 패션의 다양화는 '퓨전'을 포함한 글로벌화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밀레니엄을 위한 패션은 디자인의 글로벌화에 대한 반응을 요구했다. 1990년대 이래 동북아시아에 이목이 집중되면서 중국, 일본풍의 디자인이 많이 선보였다. 특히 일본풍의 선(zen, 禪) 스타일은 간소함, 간결함, 생략 등의 미니멀한 감각으로 검은색, 회색 등의 무채색, 차색, 감색 등 색채의 절제로 표현되었다. 소재면에서도 자연친화적인 천연 소재를 선호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된 이미지를 찾았다⁵⁾. 그리고 중국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을 의식한 중국풍의 패션 테마가 자주 화제가 되었다.

패션의 고급화와 다양화는 소재의 질(質) 경쟁 시대를 낳았다. 패션은 보디 컨시어스(body conscious) 시대가 되어 섹시함을 강조하며 신축성 있는 폴리우레탄(스판)과 레이스 등 가벼운 소재가 애용되었다.

미래학자인 다니엘 벨(Daniel Bell)⁶⁾, 존 네이스비트(John Naisbitt)⁷⁾,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⁸⁾ 등은 자원공학과 생명공학 중심의 과학기술 중시, 민족 개념의 중시, 사회적 다양성과 복합성의 증대를 예측했다. 이러한 경향은 패션에서도 편리성, 다양성, 복합성으로 나타났다.

기능성을 강조하는 복합 기능의 의복이나 컴퓨터 등의 인공 기능이 첨가된 의복이 더 많아져 의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였다. 1990년대에 이어 2000년 이후에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의 소수 민족 스타일을 계속 차용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패션의 글로벌화가 계속되었다. 또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경계가 붕괴되면서 젠더리스(genderless) 현상이 나타나고 젊게 살고 싶은 욕망이 사회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에이지리스(ageless) 현상이 더욱 확산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역사복식의 복고풍이 나타났으며, 키덜트족(kidult)⁹⁾의 등장과 함께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인간적이면서 낭만을 찾는 로맨틱 스타일이 주목을 받았다.

2) 캐주얼화와 캐릭터 패션

1990년대 이후 패션의 두드러진 경향 중 하나는 패션의 캐주얼화 경향이다. 여가의 증가와 활동적인

생활, 스포츠와 레저문화의 확산과 함께 캐주얼화 경향은 점점 강해졌다. 소비자들이 진이나 캐주얼웨어를 선호하여 다양한 스트리트 패션이 유행했다. 이러한 캐주얼웨어에 시각적으로 활력을 주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캐릭터(character)가 각광을 받으면서 캐릭터 패션이 유행했다. 캐릭터 패션의 인기는 TV, 영화, 만화, 팝 뮤직 등의 대중문화의 영향이 컸으며, 영화배우, 팝 가수, 만화 주인공들이 모티프가 되었다. 미국 월트 디즈니사(Walt Disney社)나 워너 브라더스사(Waner Bros.社)의 동물 캐릭터뿐만 아니라 일본의 산리오사(Sanrio社)의 캐릭터를 비롯하여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1990년대 스포츠, 레저문화의 확산과 함께 캐주얼화 경향¹⁰⁾은 더욱 박차를 가했다. 그리고 캐주얼화 경향에 자기다움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들의 자기표현, 귀엽고 흥미와 유머를 추구하는 풍조 등은 패션의 캐릭터 도입에 활기를 주었다¹¹⁾.

3) 파리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의 세대교체와 2000년 전후의 복식 경향

패션의 글로벌화는 파리 오트 쿠튀르에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 파리의 오트 쿠튀르와 파리 디자이너의 배출이 저조해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유럽 각지로부터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파리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유명 브랜드의 패션 디자이너의 세대교체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영국 출신의 디자이너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¹²⁾. 그 이유는 프랑스에 비해 패션산업 기반이 매우 취약했던 영국이 화려한 패션쇼로 눈길을 끌어 언론매체를 유인했고, 이를 눈여겨 본 프랑스의 오트 쿠튀르 메종에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영국의 디자이너들을 스카우트했기 때문이었다¹³⁾.

모에 헤니시 루이비통 그룹(LVMH; Louis Vuitton Moet Henessy)의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는 1996년 존 갈리아노를 지방시(Hubert de Givenchy)의 예술 감독으로 영입하였고 존 갈리아노는 환상적인 패션으로 새로운 젊은 고객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다음 해 존 갈리아노는 크리스찬 디오르의 수석 디자이너로 임명되었다. 그 대신 지방시에는 영국

패션의 개척자인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1969-)을 임명했다. 다른 프랑스의 메종(maison)들도 영국의 미술학교에서 교육받은 디자이너를 기용했다. 1997년 클로에(Chloé)는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을 졸업한 스틸라 매카트니(Stella McCartney, 1971-)를 새 디자이너로 영입했다. 한편 구찌(Gucci)는 1990년 미국 디자이너 톰 포드(Tom Ford, 1962-)를 영입하여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젊고 실용적인 이미지로 쇄신하여 현대적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2004년 그는 구찌를 떠나고 대신 구찌에서는 프리다 지아니니(Frida Giannini, 1972-)를 영입했다.

에르메스(Hermès)는 마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1957-)에서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1952-)로, 이브 생 로랑(Yves St Laurent, 1936-2008. 6.)은 톰 포드(Tom Ford, 1962-)에서 스테파노 필라티(Stefano Pilati, 1965-)가 기용되었다.

2000년 전후의 복식은 '편하고, 쉽고, 재미있고, 즐겁게 입는' 조이풀(joyful) 문화를 표방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패션의 코드에 맞추지 않는 시즌리스 패션(seasonless fashion), 타임리스 패션(timeless fashion) 등 TPO의 개념이 무너진 에브리데이 웨어(everyday wear)의 경향을 띄고 있다¹⁴⁾.

III.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와 그의 컬렉션 경향

1. 파리 진출 이전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Juan Carlos Antonio Galliano, 1960-)<그림 1>는 1960년 스페인의 항구 도시 지브롤터(Gibraltar)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스페인인이었고, 집시였으며, 그의 아버지도 지브롤터인이었기 때문에 열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¹⁵⁾.

그는 어렸을 때, 부모, 두 자매와 함께 아프리카 북부와 스페인을 돌며, 1970년대 초반까지 방랑생활을 했다. 그 당시 북아프리카 야외시장의 직물, 카펫, 냄새, 허브, 지중해의 색 등은 그가 패션 디자이너로 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6살 때 영국으로 이주해서 런던 남부의 돌윅(Dulwich)에 정착한 그의 가족은 이주해서도 그들의 집시 문화를 유지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 상점을 갈 때도 옷을 잘 입고 다니게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는 패션에 관심이 아주 많았다¹⁶⁾.

갈리아노는 16살에 시티 앤드 이스트 런던 칼리지(City and East London College)에 입학해서 디자인과 섬유 프린트를 공부했다. 그는 이 때에서야 비로소 멋을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머리를 길렀으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St. Martin's College of Art and Design)에 입학하여 1981년에서 1984년까지 본격적인 패션 디자인 수업을 받게 되었다. 갈리아노가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에서 수학하던 1980년대는 런던에 모여드는 젊은이들이 분노를 복식과 행동을 통해 표현하던 시기였고,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의 젊은이들은 런던 클럽 문화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 클럽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양성성(兩性性)이었다.

또한 갈리아노는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에서 영화, 조각, 그래픽 등 다른 분야와 교류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는 창의적으로 여러 분야를 믹스하는 실제적이고 전통적인 학교 교육 방법 덕분이었다. 이렇게 그는 호기심과 자유, 창의성을 유발시키는 좋은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재학 중에 국립극장(National Theatre)에서 연극의상담당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 일을 통해서 연극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고, 매우 중요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 연극은 그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했고, 연극을 통해 여성과 옷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서 그는 그의 컬렉션에 등장하는 모델들에게 연기를 요구하게 되었고, 작품들을 종래의 컬렉션들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발표했다.

갈리아노는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 시절, 끊임없이 일러스트를 연습했고, 대학 도서관 뿐만 아니라 빅토리아 앤 알버트 박물관(Victoria & Albert Museum)도 조사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실제 의상 제작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다. 이렇게 대학을 떠나기 전부터 패션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이 쌓아갔다¹⁷⁾. 특히 바이어스 재단을 습득하려고 노력했으며, 모든 실험적 재단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와 같이 그는 일반적인 패션의 재단과 착용법, 색에 대한 도전, 드라마, 연극성, 학교에서 배운 것, 양성성(兩性性), 클럽에서 자극받았던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고, 특히 새로운 영역들을 탐구했다.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 졸업 컬렉션 때 갈리아노의 테마는 '앵크루아아블(Les Incroyables)'이었다. 이 테마는 갈리아노가 당시의 마약 중독과 에이즈에 의해 숫자가 줄어든 젊은 런던 클럽 회원들의 정신, 1970년대 광적인 프랑스 극단론자들의 특징인 성적 방종과 신체 노출, 80년대 초반 런던의 진보성과 혼동되었던 비관주의와 같은 당시의 상황과, 프랑스 혁명 시기의 '앵크루아아블', '메르베이외즈(merveilleuses)'¹⁸⁾와의 유사점을 느낀 데서 영감을 얻은 컬렉션이었다. 졸업 컬렉션에서 나타난 갈리아노의 재치, 독창성, 자신감은 런던 패션계에 충격을 주었고, 졸업 컬렉션에서 1등상을 받았다¹⁹⁾.

성공적인 졸업 컬렉션 후, 갈리아노는 1984년, 그의 브랜드를 런칭(launching)했다. 그는 첫 컬렉션에서 동양의 소재와 스타일링을 서양의 테일러링과 결합시켜²⁰⁾, 역사적인 영향과 현대적인 트렌드를 조화한 작품들을 발표하여 화제를 모으고 곧바로 패션계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편 갈리아노가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활동하던 1980년대 초반 당시의 영국 패션산업은 산학과 정부가 힘을 합해 가장 노력하던 시기였다.

이전의 영국은 매우 창조적인 '아마추어리즘'(amateurism)에 많은 애착을 가진 나라로 자주 언급되었고, 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이 패션에 미치지 못했으며, 신진디자이너들의 재능을 비즈니스로 발전시키는 기회와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영국의 의류업체들은 패션 전문가, 저널리스트,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매년 4월과 10월에 패션 위크를 시작했다. 1983년 영국 패션 협회(BFC : British Fashion Council)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패션산업을 위한 산하 조직으로 결성되어 런던 패션 위크를 개

최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자이너 레벨의 하이패션을 포함하여 "Department of Trade & Industry"라는 정부 주도하에 패션관련단체들이 결성되어 런던 패션 위크를 중심으로 1984년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 상(British Designer of the Year Awards)"을 제정하는 등 당시 영국의 패션 산업은 원활하게 움직였다. 1983년 이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영국의 젊은 디자이너들은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컬렉션을 통해 세계의 이목을 다시 끌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영국의 패션산업은 업계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국에서 갈리아노는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런던 컬렉션²¹⁾을 통해 자신의 브랜드 컬렉션을 발표했다. 그는 런던 클럽 무대에 깊게 관여하면서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노하우를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상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웨스트우드가 무대 컬렉션에서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초점을 두고 팬시한 의상이나 환상적인 이미지에 많이 의존한 반면, 갈리아노는 의상 하나하나의 아이템의 디자인에 초점을 둔 의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의 이미지를 전개하는 디자인을 했다²²⁾.

이러한 그의 스토리 테마 방식은 1980년대 당시, 영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바이어들과 언론의 시선을 런던의 패션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나라의 컬렉션과 다른 연극적인 캣 위크 컬렉션을 보여주는 것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대학에서 수학하던 시절, 국립극장에서 의상 담당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갖게 된 연극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로 인한 상상력에서 매우 큰 영향을 받았다. 또한 런던에서 활동한 1980년대 동안 갈리아노는 역사적인 영감들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했는데, 일부는 로맨틱하고 일부는 다른 디자이너와 다른 차별성이 있었다.

그러나 갈리아노가 런던에서 활동한 1980년대 당시, 영국 패션계는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재능을 격려했지만, 신인 디자이너들이 컬렉션을 착수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산업구조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상업적으로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²³⁾.

갈리아노의 경우도 1984년부터 가졌던 3차례의

컬렉션은 로맨틱하고, 아방가르드한 경향의 작품으로 사람들을 매혹시켰지만, 회사는 파산했다. 그 후 갈리아노의 작품은 이전보다 상업적인 경향이었지만 계속 사업은 어려움을 겪었다²⁴⁾.

1987년 그는 1988년 S/S컬렉션을 발표하고 제1회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 상'²⁵⁾을 수상²⁶⁾했으나, 경제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실망하게 된 후, 해법을 찾기 위해 1990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 시장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되었다.

2. 파리 진출 후의 존 갈리아노와 그의 컬렉션

갈리아노는 90/91 F/W부터 07/08 F/W까지 파리에서 컬렉션을 발표하면서 파리에서도 역시 상당한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사업성은 없었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VMH 그룹과의 협상도 결렬되었다²⁷⁾. 92/93 F/W는 발표하지 못했고, 1993년 S/S인 '올리비아 필리버스티어(Olivia Philibustier)' 테마의 컬렉션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미국판 보그지의 편집장 아나 윈투어(Anna Wintour) 같은 지지자가 생겼고, 갈리아노가 원하던 자신만의 메종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²⁸⁾. 1994년 그는 두 번째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 상'을 받았다. 그러나 또 93/94 F/W를 발표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나 윈투어가 재정적인 면을 책임지고 케이트 모스(Kate Moss), 린다 에반젤리스타(Linda Evangelista)를 포함한 슈퍼모델들이 무료로 일을 해 주어서, 작은 컬렉션을 1995년까지 발표할 수 있었다²⁹⁾. 갈리아노의 특징인 트레인이 긴 로맨틱한 드레스와 런던의 새빌로(Saville Row) 스타일의 테일러링 등이 잘 나타난 이 컬렉션들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1990년부터 갈리아노가 파리로 활동무대를 옮겨 발표한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작품들은 영국 런던 컬렉션의 아방가르드했던 작품들과 비슷한 해체적인 경향으로 크로스 오버 스타일과 여러 가지 실험적인 착장법도 시도되었다.

파리에서의 갈리아노의 작품들은 런던에서의 작품들에 비해 색상, 소재, 실루엣이 안정적이면서도 더 여성적으로 변했다. 파리로 옮기면서 그는 새로운 창의적인 성격을 나타내었다. 즉, 작품들이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더욱 재단과 스케일이 복잡해졌으

며, 이전보다는 덜 해체적이고, 더 우아해졌다. 또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들이 런던 컬렉션 때의 작품들보다 더 웨어러블하고 상업적으로 변했으며, 재미(fun)와 드라마틱한 표현들이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대와 문화, 소재와 디자인, 아이템에 있어서 성(性)을 다양하게 넘나들며 믹스하여 표현하였다. 따라서 높은 평가를 받은 컬렉션들이 많았다. 복식 사학자 발레리 스틸(Valerie Steele, 1955-)은 1990년대에 가장 창조적인 세 명의 디자이너로 장 폴 고티에,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 1941-) 그리고 존 갈리아노³⁰⁾를 꼽았다.

드디어 모에 헤니시 루이비통 그룹에서는 1996년에 크리스찬 디오르를 이끌어갈 인물로, 갈리아노를 택했다.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 1905-1957, 프)가 언제나 스타일 혁신의 선봉에 있었던 것처럼, 갈리아노 역시 디오르 메종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IV. 존 갈리아노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

1. Fun & Young 감각의 캐주얼화

갈리아노는 건강과 젊음이 라이프스타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펑크와 그런지, 락(rock), 힙합 등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디어로, 기존의 쿼터적인 포멀한 분위기의 옷들도 캐주얼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그는 소재와 패턴을 몸의 움직임에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따라서 캐주얼하게 디자인한 그의 작품들은 보기에만 편한 것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고려한 것이었으며, 요즘의 웰빙 스타일의 확산과 함께 패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갈리아노의 캐주얼 스타일은 기존의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재미있고 나이를 더 젊게 표현하는 fun style과 young style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1) Fun Style

패션에서 'fun style'은 유머러스한 스타일, 패러디 스타일, 애니메이션적인 스타일 등으로 나타난 기존

의 트렌드에 대한 새로운 요소를 말한다.

갈리아노는 새로운 변화로 fun style을 추구하고, 젊은 사람들의 콘셉트로 자리 잡은 만화적 취향을 받아들여 다소 구식으로 보였던 디오르를 젊은 감각의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소생시켰다. 그러므로 갈리아노의 fun style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골 형상이 프린트된 드레스는 괴상함과 유머를 보여주었고, 앤디워홀의 공과 병아리를 스케치한 큰 삼화로 뒤 덮힌 큰 텐트 라인 드레스들을 발표했다³¹⁾. 이 드레스들의 컬러와 실루엣은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이었지만 돋보기 같은 짙은 색 뿔테의 안경과 비닐이나 천의 두건으로 할머니 같은 모습도 연출함으로써, 아이러니하면서 유머러스한 무대를 보여 주었다. 그리고 클래식하게 장식된 머리 위에 말총이 붙은 채찍을 붙여서 윗트 있는 패러디를 보여 주었다. 또한 만화나 코스프레 이미지의 디자인을 선보였고, 혀 내민 모습이 장식된 유머러스한 티셔츠를 선보이기도 했다<그림 2>.

이와 같이, 갈리아노는 종래의 오소독스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엔터테인먼트 이미지를 참신한 소재와 재치 있는 fun style로 제시하였다.

2) Young Style

갈리아노는 디오르에서 기존의 디오르의 이미지를 젊은 스타일로 디자인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의 뉴욕을 갈리아노는 슈트로 젊게 재탄생시켰다<그림 3>. 그리고 1957년 페미닌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 레이스를 사용한 디오르의 작품을 갈리아노는 흰 색 가죽으로 레이스 효과를 낸 짧은 길이의 여름용 드레스로 만들어, 더 액티브하고 젊게 바꾸었다<그림 4>. 또한 애니메이션이 그려진 티셔츠와 초미니 스커트를 발표하여 종래와 다른 젊고 프리티한 분위기를 표현하였고<그림 5>, 1930년대 복고풍의 호화로운 도시 패션과 네오 밀리터리 풍을 믹스하여 만든 스포츠 시크 비행 재킷은 젊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나타냈다<그림 6>.

이와 같이, 갈리아노는 크리스찬 디오르 전성기의 스타일을 비롯해서, 하이패션이 추구해 왔던 여성스럽고 우아한 콘셉트를 나이 어린 더 젊은 여성으로

변화시켰다.

2. 성과 동서 문화의 Fusion

갈리아노가 “같은 재료라도 섞을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하고, 그것이 곧 ‘유행’이 된다³²⁾”라고 말한 바와 같이, 그와 그의 팀들은 작품들을 만들기 전에 많은 조사, 여행,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하여 다양한 믹스를 시도했으며, 1990년대 이후 여러 요소의 퓨전 경향은 더욱 강해졌다.

갈리아노와 그의 팀은 퓨전 디자인을 만들어 나갈 때, 배경 조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그들은 각 시즌 초반 한 주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화에 대해 조사했는데, 연구의 상당 부분은 런던에서 이루어졌으며, 주로 거리, 클럽, 도서관, 시장, 서점, 전시회, 발레나 뮤지컬, 재즈 연주회 등에 다녔다. 주말에는 책, 비디오, 골동품, 오래된 의상 등을 가지고 파리로 돌아와, 일단 테마가 정해지면, 컬렉션을 위한 조사 자료들로부터 자극을 주었던 조사 자료들까지의 여러 가지 컨셉, 문화, 역사적 시대를 혼합했다.

갈리아노의 디자인에 다양하게 나타난 퓨전 스타일은 Sexual Fusion Style, Ethic Fusion Style, Various Fusion Style로 나타났다.

1) Sexual Fusion Style

1981년에서 1984년까지 갈리아노가 패션을 공부한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은 젊음의 거리이자, 스튜디오, 출판업자, 미술작업실과 더불어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중심지인 소호에 위치해 있었으며, 그는 소호를 이국적이고 흥미로운 장소로 보았고, 아주 좋아했다.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은 모든 것을 스타일에 따라 혼합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전통적인 예술 학교였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성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를 가진 젊은 집단이 나타났다. 그 당시, 성에 대해 자유로운 태도란 ‘양성애자(兩性愛子)’임을 행복해 하는 것이었다. 양성성은 신남민주주의의 핵심이 되었고, 소년들은 예쁘게 보이길 원했으며, 소녀들은 예쁜 소년처럼 보이고 싶어 했다. 그리고 만족할 만큼 치장하고 다닐 장소가 필요

했으며, 이러한 필요를 만족시켜줄 클럽(club)들이 웨스트 엔드(West End) 도처에 생겨났다³³⁾. 그래서 갈리아노는 그가 공부했던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과, 학교와 인접했던 소호 거리, 그 소호 거리의 클럽 문화로부터 그의 작품에 양성적인 스타일인 성의 퓨전 스타일이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갈리아노의 sexual fusion style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영국 군인의 버즈비(busby) 모자와 패미닌풍의 드레스와 매치시켰으며<그림 7>, 밀리터리 펠트 베스트와 자수 장식 실크 스커트의 매치<그림 8>, 여러 가지 블루종이나 섹시하고 아름다운 재킷 등과 타이트한 스커트나 얇은 드레스를 매치했다. 그리고 어깨를 과장되게 부풀린 매니시풍의 빅 실루엣 재킷과 여러 겹의 커다란 러플로 된 머메이드라인의 드레스를 매치하기도 했다<그림 9>.

이와 같이 그는 여러 번의 컬렉션에 걸쳐, 성(性)을 믹스하여 양성적이면서도 로맨틱한 의상들을 발표했다.

2) Ethic Fusion Style

동·서양 문화의 융합으로서, 갈리아노는 이국적인 소재, 색상, 문양, 디테일 등 민속복식이 혼합된 에스닉 퓨전 스타일을 많이 내놓았다.

스페인에서 지중해적인 열정을 가지고 태어난 갈리아노는 어려서부터 집시인 부모를 따라 아프리카 북부와 스페인을 여행했었다. 그는 이러한 이국적 문화에 대한 인상이 강했으며, 자신의 창조력의 발판은 국제적인 시각에 있다³⁴⁾고 말했듯이, 그는 여행을 많이 하며 이국적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그의 디자인에 반영시켰다.

그는 동양 문화가 극단적인 현대성과 전통성의 섬세한 요소들이 흥미롭게 혼합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18세기 초 네덜란드인과 영국인에 의해 비추어진 중국 황실 이미지와 19세기 일본 예술에 대한 자포니즘(Japonisme)을 발견했으며, 게이샤의 에로티시즘의 독특한 혼합은 극적 느낌을 자극했다. 그리고 최근의 젊은 일본디자이너들의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은 갈리아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갈리아노의 다양한 에스닉적 요소와 창의적인 부분은 플

푸아레(Paul Poiret, 1879-1944)의 영향도 받았다 <그림 10>.

이와 같이, 갈리아노는 많은 여행과 자료 조사를 통해 이국적인 문화들을 혼합하여 표현했고, 소재, 컬러, 장식에서 이국적인 요소들을 많이 융합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티베트 등 극동의 여러 문화의 혼합으로 매우 화려하고 매혹적인 의상과 장식을 만들어냈으며, 발칸반도, 러시아, 이집트, 페루, 미국, 파리 등의 여러 문화를 혼합한 퓨전 작품들을 발표했다. 또한 중국, 일본의 소재, 컬러, 실루엣 등의 이미지를 퓨전 스타일로 발표했다. 기모노풍의 이브닝 랩과 슬림한 머메이드 실루엣을 혼합<그림 11> 하는가 하면 ‘나비부인’ 이미지와 디오르풍의 환상적인 퓨전 스타일을 발표했다³⁵⁾. 그리고 발레와 중국 경극 메이크업의 퓨전 스타일<그림 12> 을 발표했다. 또한 일본 고유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벚꽃 색, 복숭아 색이 표현되었고, 일본 근세의 화가인 가츠시카 호쿠사이(葛飾北斎)의 ‘부옥삼십육경(富獄三十六景)³⁶⁾><그림 13의 왼쪽 그림>을 푸른색의 손 염색과 자수로 재현한 마 소재 코트<그림 13의 오른쪽 그림>도 있었다. 그밖에 국화, 등나무의 자수, 부채<그림 14>, 대나무<그림 15>, 종이학 접기<그림 16>, 오비 등 일본풍의 모티프로 장식했다. 차이나이즈 바이어스(Chinese bias)를 강조하여 강렬함을 보여 주기도 했고³⁷⁾, 러시아와 중국의 문화 이미지도 군인 모자와 군복 스타일을 믹스한 작품들로 선보였으며<그림 17>³⁸⁾, 아프리카 풍의 프린징 장식<그림 18>의 디테일 등 민속풍의 퓨전 스타일도 많이 나타났다.

3) Various Fusion Style

갈리아노는 1984년, ‘아프가니스탄은 서양의 이상을 거부한다.’라는 테마를 발표할 무렵, 인터뷰에서 그의 디자인에 대한 접근법을 다음과 같이 개략해서 말했다. “모두 광기어린 혼합이죠. 조각들을 함께 배치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형상(shape)을 섞고 비율을 혼합하죠. 짧은 데에 긴 것을, 긴 데에 짧은 것을 놓고 모든 가능한 규칙을 파괴하고, 신체에 어떻게 배치할까를 가지고 놀면서 나타나는 다른 모습을 찾습니다³⁹⁾.”

그는 세인트 마틴 아트 스쿨 재학 시절과 그 당시의 소호클럽에서의 편견을 버린 순수함으로써, 여러 요소를 섞고 균형을 잡아,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켰다.

그의 various fusion style은 소재의 퓨전, 아이템의 퓨전,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와의 퓨전 등으로 특징이 나타났다.

소재의 퓨전을 나타낸 것으로는, 테일러드 코트 위에 호피를 덧대어 다른 소재를 코트 위에 걸친 것 같은 작품<그림 19>⁴⁰⁾ 등이 있었다. 아이템의 퓨전의 예는 캐주얼한 셔츠와 쿼터르적인 장식이 있는 베스트의 매치<그림 20>, 캐주얼한 셔츠와 레이스가 장식된 깔끔한 재단의 원피스를 결합한 데일리 웨어(dailywear)<그림 21>, ‘경마’ 테마를 나타내기 위해 에르메스 스카프 이미지를 소재로 한 랩 스커트<그림 22> 등이 있었다.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와의 퓨전은 포멀함과 캐주얼함, 우아함과 저속함, 그리고 비싼 것과 싼 것이 혼합된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퓨전<그림 23>을 표현했다.

3. Retrospective Style의 재창조

갈리아노는 과거 스타일의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와 레트로 스타일을 표현했다. 그는 이미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던 패션의 시대들을 분류했고, 의상 제작의 실제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면서 실험적 재단을 통해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특히 그는 바이어스 재단을 습득하려고 노력했고, 과거 스타일들을 현대적으로 표현해 내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키웠다⁴¹⁾.

실제 인터뷰에서도 그는 레트로 스타일에 대한 언급을 했다. 1995년 1월 미국 보그(Vogue)와의 인터뷰에서 “과거를 참고하여 현대적인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더 테일러링과 구조를 잘 다루어서 옷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과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있는 요소들을 합치면 현대적인 것이 됩니다. 또 가끔은 무대에서 작품을 발표할 때, 관중들이 특징을 알 수 있도록 좀 더 극단적으

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때는 내 작품들은 가볍고, 타이트하지 않아서 현대적인 옷들이라고 생각합니다”⁴²⁾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그의 창조력은 그가 표현하는 현대성에서 보다, 그의 연구대상인 고전성에서 기인했다⁴³⁾. 그는 특히, 과거에 여성들이 아름답게 표현되었던 시기인 프랑스혁명 시대, 1차 대전 전의 부와 특권이 있었던 벨 에포크 시대, 1930년대에서 1950년대의 인체에 흐르는 듯한 아름다운 곡선미와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식과 노출을 많이 표현했다⁴⁴⁾.

이와 같이 갈리아노가 많은 과거의 스타일들을 영감으로 해서 현대적으로 디자인했지만, 특히 그가 패션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중의 하나는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 1876-1975) 풍의 바이어스 재단이었다<그림 24>⁴⁵⁾.

이렇게 모방과 재창조의 귀재로서 유명한 갈리아노의 레트로 스타일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Victorian Style, France Revolution Style과 1910's-1950's Style이었다.

1) Victorian Style

갈리아노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1837-1901) 재위 시절에 유행했던 빅토리안 스타일을 여러 가지 형태로 현대화시킨 벤틀 실루엣 이브닝드레스<그림 25>와 의상들을 대거 발표했다.

2) France Revolution Style

“사실 1800년대라는 거대한 역사적 순간에서 자주 영감을 얻곤 해요. 프랑스혁명은 나에게 일종의 강박관념과도 같아요⁴⁶⁾”라고 말한 갈리아노는 그의 컬렉션을 통해 프랑스 혁명 시기를 전후한 스타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디자인들을 많이 발표했다. 따라서 나폴레옹 집정기(1804-1814)의 조세핀에게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⁴⁷⁾인 옴파이어 실루엣<그림 26>이 나타났으며, 나폴레옹 칼라의 코트도 발표되었다.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Marie Antoinette, 1775-1793)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Napoleon Bonaparte, 1769-1821)의 비극적인 모습들과 혁명의 피를 연상

시키는 붉은 색이 많이 나타났으며, 프랑스 혁명의 테마를 해골 모양의 자수, 핸드 페인팅 등으로 표현하였다⁴⁸⁾.

3) 1910's-1950's Style

갈리아노는 1910년대의 폴 푸아레부터 마들렌 비오네, 1950년대의 크리스찬 디오르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디자이너들의 고전적 전통성과 그의 거친 창조성을 함께 표현했다. 특히 디오르와 갈리아노는 그 시대를 리드하고 혁신하는 디자이너였다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디오르가 소재의 특성을 살리고 구성에 초점을 두면서 인위적인 평면 패턴(flat pattern)으로 작업했던 디자이너⁴⁹⁾였던 데 반해, 갈리아노는 움직이는 입체를 잘 표현하는 패턴으로 바꾼 차이점이 있었다. 그리고 특히, 바이어스 재단으로 편안함을 더해주는 현대적 감각으로 소화하여 나타내기도 했다.

1948년 디오르가 만든 ‘엘루아즈’(Eloise)와 1980년 마르크 보양이 디오르의 ‘엘루아즈’를 오렌지색 망토의 영감으로 수정한 드레스를 갈리아노가 다시 에스닉한 요소의 영감과 그의 상상력, 창의성을 결합하여 다듬어서 재 작업한 ‘카말라’(Kamala)를 발표했다<그림 27>⁵⁰⁾. 또한 입기에 너무 무거웠던 디오르의 드레스를 매우 가볍게 디자인한 이브닝드레스를 발표하기도 했다<그림 28>⁵¹⁾. 그리고 디오르의 뉴욕 50주년 컬렉션에서도 디오르의 ‘뉴룩’을 리바이벌한 그레이 트위드 슈트와 디오르가 애용했던 레오파드 이미지<그림 29>의 드레스<그림 30>⁵²⁾를 발표했다. 또한 디오르가 즐겨 사용했던 흰색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독특하게 드레이프진 스커트는 디오르의 평면 패턴(flat pattern)을 갈리아노가 몸의 움직임이 있는 패턴으로 바꾼 시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었다⁵³⁾<그림 31>. 디오르 창립 60주년을 기념한 컬렉션에서는 디오르의 ‘뉴룩’을 리바이벌한 블랙 슈트가 나타났다<그림 32>. 그리고 디오르의 작품들의 이미지를 누드 컬러로 표현한 ‘디오르 누드(Dior Nude)’를 제시했다⁵⁴⁾<그림 33>.

1910년대 폴 푸아레의 벨 에포크 시대를 나타냈던 드레스를 모피 칼라 장식과 핸드 페인팅된 벨벳 드레스<그림 34>⁵⁵⁾와 동양풍 로브<그림 35>로 재

현하였다. 또한 잔 랑뱅(Jeanne Lanvin, 1867-1946)이 1926년에 디자인한 흑백의 가운을 패셔너블한 회색으로 리바이벌한 드레스도 발표했으며<그림 36>⁵⁶⁾, 그 외에도 1920년대의 복고풍으로 코트와 흘러내리는 실루엣의 가벼운 꽃무늬 실크 드레스가 나타났다. 1930년대의 복고풍으로는 시스 실루엣의 라메(lamé) 드레스를 발표했고⁵⁷⁾, 1960년대 풍의 디자인들<그림 37>도 많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갈리아노는 과거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는 레트로 스타일을 표현할 때, 장식적 형태를 복제하기보다는 독창적으로 재 작업하여 현대적으로 표현해 냈으며, 특히 디오르의 디자인을 철저히 연구하여 디오르 메종의 정신을 전승하면서도 재해석하여 새롭게 재창조했다.

4. Femme Fatale Style의 뉴웨이브

갈리아노와 디오르는 여성을 가장 여성스럽게 나타내는 데 있어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디오르는 주로 여성의 엘레강스한 점을 부각시켜 디자인했으며, 갈리아노는 대담하게 페티시즘의 극단적인 형태로도 에로티시즘을 나타냈다. 특히 갈리아노가 에로티시즘을 가장 자연스럽게 상업화시킨 대표적인 작품은 속옷을 겹옷화시킨 슬립 드레스(slip dress)라고 할 수 있다<그림 38>. 이 슬립 드레스는 다이애너 황태자비가 공식석상에서 입을 정도로 성공했다. 슬립 드레스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의 섹시 룩에 비해 부드럽게 보였고 생산이 용이한 편이었기 때문이었다.

갈리아노는 주로 팜므 파탈형의 여성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섹시한 스타일들을 표현했다. 그녀들은 패션의 현실을 뛰어넘었으며, 시대를 초월한 낭만주의를 표현했다. 그 대표적인 아이콘들은 미차 브리가드(Mitzah Bricard), 마르케사 카사티(Marchesa Csati), 미샤 서트(Misia Sert) 등이 있었다.

갈리아노의 아이콘들은 자신의 성에 대한 착취와 관련된 억압으로부터 언제나 도망치며, 뭔가 다르고, 보다 나은 삶을 향해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갈리아노의 작품 시기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파리 컬렉션 초기 아이콘들의 특징은 민감하고 충동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깨어지기

쉽고 상처입기 쉬운 매력이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갈리아노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는 아편 소굴의 매춘부, 게이샤, 호스테스 같은 외설적이고 선정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갈리아노의 여성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페티시즘, 증오까지도 포함되어 강렬하게 나타났다⁵⁸⁾.

갈리아노와 디오르가 모두 좋아했던 팜므 파탈 아이콘은 미차 브리가드였다. 그녀는 1, 2차 대전 사이 기간 동안 파리의 유명했던 고급 매춘부 중의 하나였고, 1940-1960년대 쿠티르 수준의 옷을 입는 패션 리더였다. 이와 같이 그녀는 매우 패셔너블하고, 남자들을 매혹시키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디오르와 갈리아노의 강력한 뮤즈가 될 수 있었다⁵⁹⁾. 또한, 파블로 피카소(Pablo Ruiz Picasso, 1881-1973)와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 1899-1961)에게도 영감을 주었던 마르케사 카사티는 갈리아노에게도 상상의 원천이 될 만한 매우 아름다운 외모와 특이한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었다⁶⁰⁾.

미차와 비슷한 시기에 예술가들과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또 다른 여성은 샤넬의 친구이자 라이벌이기도 한 미샤 서트였다. 그녀는 예술가들의 후원자이자, 리스트(Franz Liszt)와 포레(Gabriel Fauré), 디아길레프(Serge Diaghilev), 툴루즈 로트렉(Toulouse-Lautrec), 르느와르(Pierre-Auguste Renoir), 보나르(Pierre Bonnard)와 빌라드(Jean-Édouard Vuillard) 등 음악과 무용, 미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준 여성이었다. 프로스트(Tracy Proust)는 그녀를 대단한 창조물이자 '역사적인 기념비'라고 묘사했다. 1950년에 그녀가 죽었을 때 샤넬은 그녀에게 하얀 드레스를 입히고 하얀 꽃들과 페일 핑크 색티 리본과 한 송이의 핑크 로즈를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 주었다. 이런 그녀를 갈리아노는 그의 아이콘으로서 선택하여 '미샤 디바'라는 이름으로 컬렉션을 발표했다⁶¹⁾.

이와 같이, 갈리아노는 미차 브리가드, 마르케사 카사티, 미샤 서트 이외에도 화가의 모델이자 정부였던 키키(Kiki), '멋진 Lydig 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리타 드 아코스타 리딕(Lita de Acosta Lydig), 말괄량이 이미지를 가진 게비 데슬리(Gaby Deslys),

매춘부 이미지가 강했던 리안 드 푸기(Liane de Pougy), 마티스가 그린 독일 배우 마리 라니(Marie Lani), 남미 여배우인 도로레스 델 리오(Dolores del Rio) 등의 열정적이며, 사치하고 아름다웠던 팜므 파탈들을 선호하고 그녀들에게서 풍부한 영감을 얻어 작품을 표현했다.

V. 결론

존 갈리아노가 1990년 파리 진출 이후 2007년까지 디오르 메종의 수석 디자이너로서 발표한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갈리아노가 크리스찬 디오르 메종에서 활동을 시작한 1997 S/S에서 07/08 F/W까지의 크리스찬 디오르 오트 쿠튀르 컬렉션과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의 디자인 특성을 필자는 ①fun & young 감각의 캐주얼(casual)화, ②성과 동서 문화의 퓨전(fusion), ③레트로스펙티브 스타일(retrospective style)의 재창조, ④팜므 파탈 스타일(femme fatale style)의 뉴웨이브 등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재미와 젊음을 추구하는 fun & young 감각은 캐주얼화를 촉진했다. 갈리아노는 젊은 사람들의 컨셉으로 자리 잡은 만화적 취향을 받아들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fun style로 표현했다. 그리고 여성스럽고 우아한 컨셉을 더 젊은 여성으로 변화시켜, young style을 표현했다.

퓨전 스타일은 sexual fusion style, ethic fusion style 외에, various fusion style로 나타났다. 갈리아노는 성(性)을 믹스하여 양성적이면서도 로맨틱한 sexual fusion style을 발표했다. 스페인 태생의 성

향, 폴 푸아레, 18세기 초의 중국 황실 이미지, 일본 예술 취향(자포니즘:Japonisme), 고대 이집트 복식으로 ethic fusion style을 나타냈으며, 소재와 아이템, 상위문화와 하위문화 등의 퓨전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various fusion style도 발표했다.

레트로 스타일은 Victorian style, France Revolution style, 1910's-1950's style로 나타났다. 즉, 로코코의 낭만성, 고딕 시대의 근엄함, 다양한 Victorian style과 새로운 혁명적인 스타일이 나타났던 France Revolution style도 즐겨 표현했고, 1910년대의 폴 푸아레부터 마들렌 비오네, 1950년대의 디오르에 이르기까지 세기의 디자이너들의 고전적 전통성을 독창적으로 재작업하여 현대화시켰다.

femme fatale style은 패셔너블한 팜므 파탈형의 여성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섹시하게 표현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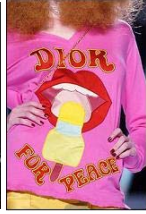
첫째, 갈리아노는 어떤 문화에도 개방되어 있는 자유주의자이면서도, 원칙과 전통을 존중하고 끊임 없이 탐구하여 패션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리드했다.

둘째, 그는 아방가르드한 면만 고집하지 않고 상업성이 있도록 변화시켰다. 특히 그의 창의성은 크리스찬 디오르 이미지를 캐주얼하고 젊게 변화시켰다.

셋째, 영국인이며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는 언제나 영국(빅토리안 스타일)과 프랑스(나폴레옹 시대 스타일, 팜므 파탈 스타일)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화제가 되는 중국, 일본, 이집트 풍과 결합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뛰어난 기획력을 제시했다.



<그림 1> John Galiano (1960-, 영→프)



<그림 2> 유머러스한 티셔츠, Dior Prêt à Porter, 2005 S/S, 「www.vogue.co.uk」



<그림 3> 1947년 크리스찬 디오르의 뉴욕,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p.62.(좌)와 디오르의 뉴욕을 리바이벌한 슈트, Dior Haute Couture, 07/08 F/W, *Mode et Mode (Tokyo)*(우)



<그림 4> 1957년 크리스찬 디오르의 레이스 드레스(좌)와 가죽 소재 선 드레스(우), Dior Haute Couture, 1997 S/S, *Galliano*, pp.34-35.



<그림 5> 애니메이션이 그려진 티셔츠와 초미니 스커트, Dior Prêt à Porter, 2005 S/S, 「www.vogue.co.uk」



<그림 6> 스포츠 시크 에이비에이터 재킷, Dior Prêt à Porter, 05/06 F/W, 「www.vogue.co.uk」



<그림 7> 영국군인의 버즈비(busby) 모자와 패미닌풍의 드레스로 성의 퓨전, Dior Haute Couture, 2002 S/S, 「www.vogue.co.uk」



<그림 8> 밀리터리 펠트 베스트와 자수 장식 스커트, Dior Prêt à Porter, 02/03 F/W, 「www.vogue.co.uk」



<그림 9> 매니시풍의 빅 실루엣 재킷과 머메이드 실루엣의 스커트, Dior Prêt à Porter, 04/05 F/W, 「www.vogue.co.uk」



<그림 10> 폴 푸아레의 일본풍 실크 이브닝 램(좌)과 그 이미지의 드레스(우), Dior Haute Couture, 97/98 F/W, *Fashion*, p.35.



<그림 11> 기모노풍의 이브닝 램과 머메이드 실루엣의 퓨전 스타일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2003 S/S, *Book Moda (Milano)*



<그림 12> 발레 드레스와 중국 경극 메이크업의 퓨전, Dior Haute Couture, 05/06 F/W, *Book Moda (Milano)*



<그림 13> 가츠시카 호쿠사이의 '부옥삼십육경', Hokusai, pp.56-57.(좌)를 디자인에 도입한 코트, Dior Haute Couture, 2007 S/S, *Mode et Mode (Tokyo)*(우)



<그림 14> 디오르 메종의 상징색인 그레이와 핑크에 일본풍의 부채를 바다 부분에 장식한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2007 S/S, *Mode et Mode (Tokyo)*



<그림 15> 일본풍 대나무 모티프 자수의 이브닝드레스, Dior Haute Couture, 2007 S/S, *Mode et Mode (Tokyo)*



<그림 16> 종이학 모티프의 웨딩드레스, Dior Haute Couture, 2007 S/S, *Mode et Mode (Tokyo)*



<그림 17> 중국 인민복 이미지의 팬츠와 튜닉, Dior Prêt à Porter, 99 S/S, *Fashion Today (London)*, p.326.



<그림 18> 아프리카 이미지의 프린징 장식 드레스, Dior Prêt à Porter, 00/01 F/W, *Book Moda (Milano)*



<그림 19> 호피를 덧댄 테일러드코트, Dior Prêt à Porter, 99/00 F/W, *Gap Press (Tokyo)*



<그림 20> 캐주얼한 셔츠와 쿠티르적 장식 재킷의 매치, Dior Haute Couture, 01/02 F/W, Book *Moda (Milano)*



<그림 21> 다른 아이템이 혼합된 데일리웨어, Dior Prêt à Porter, 98/99 F/W, Book *Moda (Milano)*



<그림 22> 에르메스 스카프를 소재로 한 랩 스커트, Dior Prêt à Porter, 2000 S/S, Book *Moda (Milano)*



<그림 23> 우아함과 저속함이 혼합된 드레스, Galliano Prêt à Porter, 1996 S/S, *Fashion - The century of the designer(London)*



<그림 24> 마들렌 비오네의 바이어스 재단 드레스, *Fashion(Tokyo)*, p.460.(좌)와 비오네 풍의 이브닝 드레스, Galliano London Colletion, 97/98 F/W, *Fashion(London)*, pp.76-77.(우)



<그림 25> 버슬 실루엣 이브닝드레스, Dior Haute Couture, 00/01 F/W, *Collezioni(Milano)*



<그림 26> 엠파이어 실루엣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2005 S/S, 「www.vogue.co.uk」



<그림 27> 갈리아노의 '카말라' 드레스, 97 S/S, *Galliano*, p.32.



<그림 28> 크리스찬 디오르의 드레스(좌)를 가볍게 디자인한 이브닝드레스(우), Dior Haute Couture, 1997 S/S, *Fashion*, p.255



<그림 29> 향수광고, *Fashion*, p.266.



<그림 30> 크리스찬 디오르가 즐겨 사용했던 레오파드 무늬 이미지의 드레스들, Dior Prêt à Porter, 97/98 F/W, *Fashion*, p.267.



<그림 31> 뒷자락을 독특하게 드레이프시킨 스커트(후면), Dior Haute Couture, 1998 S/S, *Fashion - The Century of the Designer*, p.474.



<그림 32> 디오르의 뉴욕을 리바이벌한 블랙 슈트, Dior Haute Couture, 07/08 F/W, *Mode et Mode (Tokyo)*



<그림 33> 크리스찬 디오르 작품을 누드 컬러로 표현한 드레스, Dior Prêt à Porter, 2006 S/S, 「www.vogue.co.uk」



<그림 34> 폴 푸아레 풍의 헤드페인팅 벨벳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97/98 F/W, *Collezioni Donna (Milano)*



<그림 35> 폴 푸아레의 동양풍 로브, *Fashion(Tokyo)*, p.345.(좌)와 그 이미지의 이브닝 랩과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1998 S/S, *Fashion(London)*, p.30.(우)



<그림 36> 1926년 잔 랑뱅의 디자인(좌)과 그 이미지의 드레스(우), Dior Haute Couture, 1998 S/S, *Fashion*, p.41.



<그림 37> 1960년대 풍 튜닉과 팬츠, Dior Haute Couture, 2005 S/S, 「www.vogue.co.uk」



<그림 38> 슬립 드레스, Dior Haute Couture, 1997 S/S, *Galliano*, p.31.

참고문헌

- 1) 조규화 · 이희승 (2004), *패션미학*, 수확사, p.251.
- 2)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Munich, London, New York : Prestel Verlag, p.168.
- 3) Colin McDowell. (1998), *Galliano. N. Y. : Rizzoli*
- 4) 조규화 · 이희승, op.cit., p.427.
- 5) 조규화 · 이희승, op.cit., pp.241-245.
- 6) Daniel Bell ,(197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Y.:Basic Books, pp.36-38.
- 7) John Naisbitt · Patricia Aburdene, (1990), *Megatrends 2000*, N.Y.:William Morrow & Company. Inc., p.29.
- 8) Alvin Toffler, (1984), *The Third Wave*, N.Y.:Bantam, pp.45-60.
- 9) naver 백과사전, (검색일 2007. 12. 31.), 자료 출처 <http://dic.search.naver.com>. '키드(kid)'와 '어덜트(adult)'가 합성어로, 20-30대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이의 분위기와 감성을 간직하고 추구하는 성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 10) Ibid., pp.247-248.
- 11) 조규화 (2007), "일본 패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11(4), pp.232-246.
- 12)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1999), *20th-Century Fashion*, London: Thames & Hudson, pp.252-273.
- 13) Gerda Buxbaum. (1999), *Icons of Fashion : The 20th Century*, N. Y. :Prestel Verlag, p.168.
- 14) 조규화 · 이희승, op.cit., p.250.
- 15) "John Galliano's Wicked, Wicked Cut: the designer of the moment dishes it out - interview with Fashion Designer John Galliano-Interview", findarticles, Retrieved September 11, 2006, from http://www.findarticles.com/p/articles/mi_m1285/is_n9_v2/4/ai_15729163
- 16) "John Galliano", Hello Magazine, Retrieved September 11, 2006, from <http://www.designmuseum.org/design/john-galliano>
- 17) Colin McDowell. (1998), *Galliano*. New York: Rizzoli, pp.72-80.
- 18) 메르베이외즈(merveilleuse 프) : 원래는 「기묘한」, 「기괴한」, 「신기한」이란 의미의 형용사. 프랑스 혁명 후 총재정부 시대(1795-99)에 나타난 정통파가 아닌, 사람의 눈을 끄는 이색적인 멋쟁이 여성을 뜻한다. 메르베이외즈는 흐트러진 머리, 얇은 모슬린이나 리넨을 소재로 한 하이 웨이스트 라인의 슈미즈 드레스에 커다란 술을 걸치고 색 있는 장갑을 끼었다. 조규화(1995), *복식사전*, 경춘사, p.151.
- 19) Colin McDowell. (1998), op.cit., pp.78-83.
- 20)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op.cit. pp.220-251.
- 21) 1980년대 당시 영국의 의류업체들은 패션 전문가, 저널리스트들,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개별적인 컬렉션보다는 매년 4월과 10월에 패션 위크를 시작했다.
- 22) Colin McDowell. (2000), *Fashion Today*, London.: Phaidon, pp.379-383.
- 23)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op.cit., pp.220-251.
- 24) "Design in Britain. John Galliano, Fashion Designer 1960", Design Museum, Retrieved November 29, 2006, from <http://www.designmuseum.org/design/john-galliano>
- 25) 1983년 디자이너 레벨의 패션산업을 위한 산하 조직으로 결성된 영국 패션 협회(BFC: British Fashion council)는 1984년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 상 (British designer of the year awards)”을 제정했다.
- 26) “Who’s who, John Galliano”, Vogue(London), Retrieved November 29, 2006, from http://www.vogue.co.uk/whos_who/John_Galliano
- 27) "John Galliano", Hello Magazine, Retrieved

- September 11, 2006, from <http://www.designmuseum.org/design/john-galliano>
- 28) Colin McDowell, op.cit. p.166.
- 29) "John Galliano", Wikipedia, Retrieved September 11, 2006, form http://en.wikipedia.org/wiki/John_Galliano
- 30) Valerie Steel(1997) *Fifty Years of Fashion : New Look to Now*, Connecticut : Yale Univ. Press, p.152
- 31) "Trend meets Classic", Gap Press(2001 S/S), Tokyo :Gap. Co., Ltd., Vol.34.
- 32) Colin McDowell. (1998), op.cit., pp.46-51.
- 33) Ibid., pp.73-75.
- 34) Andrew Tucker. (1998). *The London Fashion Book*, London.: Thames and Hudson. p.1178.
- 35) "Christian Dior", *Mode et Mode*(2007 S/S), Tokyo : Mode et Mode Sha. Co., Ltd., pp.20-41.
- 36) Matthi Forrer. (1991), *Hokusai*, London:: Prestel, pp.56-57.
- 37) Colin McDowell, op.cit., p.111.
- 38) "Con Immanabile Fantasia with The Usual Imagination!", *Book Moda*(1999 S/S), Milano : Moda Information., Ltd., p.71.
- 39) Colin McDowell. (1998), op.cit., pp.91-195.
- 40) "Irresistible Fun-Fashion", *Book Moda*(00/01 F/W), Milano : Moda Information., Ltd., p.294.
- 41) Colin McDowell. (1998), op.cit., pp.72-80.
- 42) "John Galliano", *Vogue*(1995 S/S), N. Y. :The Conde Nast Pub., Ltd., p.182.
- 43) Andrew Tucker, op.cit., p.207.
- 44) Colin McDowell. (1998), op.cit., p.45.
- 45) Gerda Buxbaum, op.cit., p.168.
- 46) Ibid., p.102.
- 47) "Christian Dior", *Book Moda*(2005 S/S), Milano : Moda Information., Ltd., p.170.
- 48) "Christian Dior", *Mode et Mode*(2005/ S/S), Tokyo : Mode et Mode Sha. Co., Ltd., pp.82-98.
- 49) 조규화 · 이희승, op.cit., p.397.
- 50) Colin McDowell. (1998), op.cit., pp.32-33.
- 51) Charlotte Seeling. (2000), *Fashion-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Cologne: Könemann, p.255.
- 52) Charlotte Seeling, op.cit., pp.266-267.
- 53) Ibid., p.474.
- 54) "Christian Dior", *Mode et Mode*(05/06 F/W), Tokyo : Mode et Mode Sha. Co., Ltd., p.84.
- 55) "Fashion's Frontier", *Vogue*(97/98 F/W), N. Y. :The Conde Nast Pub., Ltd., p.350.
- 56) Ibid., p.41.
- 57) "Christian Dior", *Book Moda*(05/06 F/W), Milano : Moda Information., Ltd., p.111.
- 58) Colin McDowell. (2000), op.cit., pp.340-383.
- 59) Colin McDowell. (1998), op.cit., p.33.
- 60) Ibid., p.115.
- 61) Ibid., p.116.

접수일(2008년 10월 6일)

수정일(1차 : 2008년 10월 29일, 2차 : 11월 20일)

게재확정일(2008년 11월 24일)